

완성차업체 직원수 12만6723명...5년새 8.6% ↑

현대·기아차·쌍용차 늘고

르노삼성·한국지엠 감소

현대차 1만여명 늘어 최대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의 직원 수가 지난 5년간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5사 중 현대·기아차, 쌍용차의 고용은 늘어난 반면,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은 감소했다.

17일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업체의 직원 수는 총 12만67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1년 11만6714명보다 8.6% 늘어난 수치다.

업체별로는 현대차의 직원 수가 6만75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가 3만4102명, 한국지엠 1만6031명, 쌍용차 4833명, 르노삼성 4240명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직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현대차로 2011년(5만7105명)보다 18.2%가 늘었다.

같은 기간 쌍용차와 기아차도 각각 11.9%, 5.2%가 증가해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차의 경우에는 2009년 법정관리 신청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1800여 명을 내보내고 454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이후 회사 경영이 회복되자 2013년 무급휴직자 454명을 전원 복직시켰고 작년 2월에는 티볼리 성공으로 40명을 회사로 더 불러들이면서 직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르노삼성은 직원 수 감소가 가장 컸다.

2011년 5746명에서 2016년 4240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할 때 4명 중 1명꼴로 직원이 줄었다.

르노삼성은 최악의 경영 침체 시기였던 2011~2012년에 직원 수를 1000명 이상 줄인 이후 지난 4년간 4000명대 초반의 직원 수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지엠도 직원 수가 2011년 1만7134명에서 2016년 1만6031명으로 5년 새 6.4% 감소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국내 자동차업체 직원 수 추이

| 구분 | 2016년 | 2015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5년간 증감 |
|------|---------|---------|---------|---------|---------|--------|
| 현대차 | 67,517 | 66,404 | 64,956 | 59,831 | 57,105 | 18.2% |
| 기아차 | 34,102 | 34,121 | 34,112 | 32,756 | 32,411 | 5.2% |
| 한국지엠 | 16,031 | 16,236 | 16,490 | 17,147 | 17,134 | -6.4% |
| 쌍용차 | 4,833 | 4,773 | 4,829 | 4,365 | 4,318 | 11.9% |
| 르노삼성 | 4,240 | 4,220 | 4,240 | 4,577 | 5,746 | -26.2% |
| 계 | 126,723 | 125,754 | 124,627 | 118,676 | 116,714 | 8.6% |

(자료: 각사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들이 쏘울 생산라인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기아차 스포티지 2018년형 출시

광주공장 생산... 고성능 에어컨필터 탑재

기아자동차는 고성능 에어컨필터를 전 모델에 기본 탑재한 스포티지 2018년형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아차 광주 2공장에서 생산되는 기아차 스포티지 2018년형은 불철 환사는 물론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걸러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공기를 만들어주는 '고성능 에어컨 필터'가 전 모델 기본 탑재됐다.

기아차는 스포티지 2018년형에 '스타일 에디션' 트림을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 2.0 디젤 모델 중 노블레스 트림의 디자인을 토대로 편의 사양을 보강했다. 19인치 휠, 블랙 인조가죽 클림시트, 발광다이오드(LED) 안개등, LED 후방 콤비램프 등이 적용됐다.

최상위 트림인 '노블레스 스페셜'에는 가죽시트, 동승석 통풍시트·파워시트 등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편의 사양이 강화됐다.

스포티지 2018년형의 가격은 ▲2.0 가솔린 2110만원~2340만원 ▲1.7디젤 2320만원~2530만원 ▲2.0디젤 2405만원~2935만원(이상 자동변속기 기준)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기차 전국화... 급속충전기 호남·제주 54기 설치

환경부, 전국 180기 추가

환경부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180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17일부터 운영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0기, 인천·경기·충청 47기, 영남·강원 29기, 제주·호남 54기이다.

전기차가 비교적 많이 보급돼 있는 서울과 제주에는 급속충전기가 2기 이상 있는 집중충전소를 각각 4곳에 만들었다.

이번 급속충전기 추가설치로 모든 시·군에 최소 1기 이상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돼 전기차가 전국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충전기 화면이 기존 7인치에서 12.1인치로 확대됐고, 일반 컴퓨터 모니터의 5배 이상 밝아졌다.

충전기 제작사마다 다른 메뉴화면을 표준화하는 한편, 오류 개선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충전기 통합관리전산망이 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장이 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체크카드만 결제가 가능한 것을 모든 신용·체크카드



로 확대했다.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6월 말까지 시험 운영된다. 이 기간 충전기 사용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0.2대이다.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이 개선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7월까지 260기, 10월까지 250기를 추가로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대형마트·패스트푸드점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벤츠 지난해 매출액 3조7875억

판매 실적 역대 최고 기록 경신

전년도보다 20.5% 증가

국내 수입차 시장 1, 2위를 다투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가 지난해 실적 면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 3조원 클럽에 처음 가입했고, 벤츠코리아는 3조원대 후반의 매출을 기록했다.

BMW코리아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3조958억원으로 전년(2조8757억원)보다 7.65% 늘었다.

BMW코리아가 매출 3조원을 넘긴 것은 국내 시장 진출 이후 처음이다. 또 2014년 매출 2조원 클럽에 가입한 지 불과 2년 만이다.

지난해 BMW코리아의 영업이익은 64억원으로 전년(2352억원)보다 무려 2288억원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366억원으로 전년(464억원)보다 98억원 줄어 들었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한

이유에 대해 "마케팅 및 판매관리비의 증가와 서비스 네트워크 등 인프라 투자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에 나온 BMW코리아의 지난해 기부금은 20억원이었다. BMW코리아는 미래 재단 22억원을 합쳐 작년 연간 기부금이 총 42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BMW를 제치고 첫 1위를 차지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3조787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

벤츠코리아는 2014년 매출 2조원 클럽에 가입한 데 이어 2015년에 매출 3조원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매출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벤츠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1143억원이었다.

감사보고서에 나온 벤츠코리아의 지난해 기부금은 22억원이었다.

이 밖에도 재단 기부금 14억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네시스 2017 EQ900 출시

제네시스 브랜드는 17일 편의사양을 강화한 2017 EQ90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2017 EQ900 전 트림에는 전동식 뒷면 유리 커튼, 주차 때 운전석 문만 열리게 하는 세이프티 언락, 전동식 트렁크 등의 편의사양이 기본 적용됐다.

5.0모델에만 적용되던 프리미엄 나파 가죽 내장재 등은 3.8 모델과 3.3터보 모델 프레스티지 트림까지 확대됐다. 실내 아날로그 시계의 제네시스 로고도 전 트림에 기본으로 포함됐다.

제네시스는 2017 EQ900 출시를 기념해 5월 출고 고객(선착순 1100명)에게 하만카돈 블루투스 스피커와 소프라노 조수미 음악 CD 등을 제공한다.

판매 가격은 ▲3.8 모델 7500만원~1억900만원 ▲3.3 터보 모델 7900만원~1억1300만원 ▲5.0 모델 1억1800만원~1.50리무진 1억5400만원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공장] 광주 광산구 오선동 진곡일반산업단지 내 위치 일반공업지역 토지 8,367㎡ 건물 2,487㎡ 감평가 61억1천백 ▶ 최저가 42억7천8백
- ★ [숙박시설]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실버타운 요양원 적합부지 토지 3,613㎡ 건물 2,752.77㎡ 감평가 12억9천3백 ▶ 최저가 7억2천4백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평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해태제과 광주공장 남측 일반공업지역 토지 3,653㎡ 건물 3,971㎡ 감평가 39억2천2백 ▶ 최저가 27억4천5백
- ★ [대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마리 4,494㎡ 계획관리지역 무인텔신축 최적할지 감평가 10억3천3백 ▶ 최저가 5억7천8백
- ★ [무인텔] 광주 광산구 쌍암동 객실 28개, 토지 1,373㎡ 건물 1,908㎡ 감평가 45억 ▶ 최저가 25억2천만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북구 용동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종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기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 ★ [토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답 34,085㎡ 분할매수가 매매가 상당후결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전·대·임야 52,299㎡ 평당5만 (협의가)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